

KIA, LG·한화 6연전 싹쓸이... 선수도 팬도 신바람

시즌 14승 4패... 굳건한 선두
홍종표·한준수 등 백업 맹타
김도영 1·2차전 결승타 쾌조
선발진·필승조는 '잔물 투구'



KIA타이거즈가 6연승을 달리며 우승을 향한 기세몰이에 나섰다.

KIA는 디펜딩 챔피언 LG트윈스에 이어 다크호스 한화이글스와의 3연전도 싹쓸이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KIA는 14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서 5-2로 이겼다. 앞서 2차전 11-9, 1차전 8-4로 이기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던 KIA는 연속 스윕에 성공했다.

지난 주 삼성에 털미를 잡았던 KIA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다. LG와 3연전 도중 투수 이의리와 내야수 박민이 부상을 당하며 추가 이탈자가 발생했음에도 내야수 홍종표와 포수 한준수 등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연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홍종표는 지난 11일 1군에 콜업된 직후 네 경기 모두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비록 14일 한화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



KIA 김도영이 14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 1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홈런을 쏘아 올린 뒤 조재영 3루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했지만 11일 LG전과 13일 한화전 멀티히트를 생산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펼쳤다.

한준수는 지난 11~13일 세 경기 연속 선발로 포수 마스크를 쓰며 김태균 체력을 안배했다. 세 경기에서 14타수 6안타

2볼넷으로 4타점 4득점을 생산하며 공격력에 힘을 보탤다. KIA는 4월 둘째 주를 홍종표와 한준수

의 활약에 힘입어 단독 선두로 마무리했다. 지난주 2위로 내려섰던 KIA는 14승 4패(승률 0.778)로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

김도영 타격 부활도 연승에 힘을 보탤다. LG와 3연전에서 13타수 7안타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김도영은 한화를 상대로 13타수 5안타를 생산했다. 1·2차전 연속 결승타를 만들어 냈으며 1차전과 3차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파괴력 있는 모습을 선보였다.

선발진도 연이은 호투로 승리에 발판을 닦았다. 윤영철은 1차전에서 5이닝 2실점(1자책점) 4탈삼진, 양현종은 2차전에서 6이닝 2실점 8탈삼진, 제임스 네일은 3차전에서 5.2이닝 2실점 7탈삼진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이 네 경기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것도 고무적이다. 앞선 세 차례 등판에서 무난한 투구를 펼쳤지만 타선 지원이 터지지 않는 등 승리 없이 1패만 안았다. 올 시즌 두 번째 퀄리티 스타트와 첫 승을 챙기며 상승세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필승조도 올 시즌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3연전에서 박준표와 김사운, 윤중현 등 추격조가 흔들린 가운데 장현식과 박도규, 이준영, 전상현, 최지민, 정해영이 2경기에 나서 무실점으로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다. 정해영은 시즌 첫 멀티이닝 세이브까지 해내면서 의미를 더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부 윤차오케테 “올해도 광주 오픈 즐기겠다”

작년 대체 선수서 올 5번 시도
오늘 알렉산더 블락스와 32강

지난해 서울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광주 오픈에서 8강 진출로 존재감을 알렸던 부 윤차오케테(중국·Bu Yunchaokete·사진)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지난해 대체 선수 자격으로 극적인 출전 기회를 잡았던 그는 올해 대회에서는 5번 시드를 부여받으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윤차오케테는 14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 오픈 챌린저 2024 참가를 앞두고 사전 훈련을 가졌다. 5번 시드를 받고 32강에 직행한 그는 15일 알렉산더 블락스(벨기에·Alexander Blockx)와 맞대결을 치른다.

그는 훈련을 마친 직후 “다시 광주에 돌아왔다”며 “작년에는 한국에 3주를 머물렀는데 올해는 2주간 지낸다.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차오케테는 1년 사이 ATP 단식 랭킹을 242위에서 181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서울 오픈과 부산 오픈에는 참가 자격이 있었지만 광주 오픈은 대체 선수(ALT)로 뛰었던 그는 올해 당당히 시드권에 입성했다.

그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대회를 하루하루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회 역시 매 경기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광주 오픈에서 8강 진출로 좋은 기억을 안고 갔던 만큼 올해 대회에서도



호성적을 노릴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차오케테는 “지난해와 다른 선수들과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도 다를 것”이라며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기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식에만 출전하는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부산 오픈은 32강에서 예선을 거친 리오 노구치(일본·Rio Noguchi)에게 0-2(5-7, 5-7)로 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윤차오케테는 “단식에만 출전하기 때문에 지면 곧바로 집에 가야 한다”며 “부산 오픈에서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좋았다. 탈락 이후 충분히 컨디션을 조절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FC, 충격의 5연패

전북에 1-2 패... 강등권 위기
“휴식기... 분위기 재정비한다”



광주FC의 연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시즌 6경기 무승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전북현대모터스의 첫 승 제물이 되며 5연패로 최악의 흐름에 빠졌다. 휴식기를 통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

광주는 지난 13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개막 2연승을 달렸던 광주는 이후 다섯 경기에서 내리 패하며 2승 5패(승점 6·득점 11)로 이날 기준 8위까지 내려앉았다.

작은 실수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 광주는 전반 17분 프리킥을 내준 뒤 세컨볼 혼전 상황에서 이재익에게 선제 실점했지만 후반 37분 이진희의 집념으로 동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 이준 골키퍼의 패스가 비니시우스에게 차단당한 뒤 송민규가 마무리하며 허무한 극장골을 내줬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이정호 감독 부임 후 최다인 5연패에 빠지며 강등권 추락 위기에 몰렸다.

이 감독에게도 패배의 여파는 컸다. 경기 끝난 뒤 한참 벤치를 떠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감독이 할 수 있는 것과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광주는 2주 간격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선수단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기회다. 공수 조직력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이 감독은 “감독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겠다. 선수들을 더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팀으로서 더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겠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신나게 뛸 수 있도록 더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휴식기가 있어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페퍼저축은행, FA 한다혜 영입... 리베로 보강

3년 총액 8억7000만원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V-리그 여자부 자유 계약(FA) 시장에서 베테랑 리베로 한다혜(29·사진)를 영입하며 지난 시즌 도중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난 오지영의 빈자리를 채웠다.

14일 페퍼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다혜와 연봉 및 옵션 총액 8억7000만원에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V-리그 여자부 FA 시장에서 첫 공식 발표이자 오지영과 박정아, 채선아에 이은 페퍼저축은행의 네 번째 외부 수혈이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신임 감독은 “한



다혜의 영입이 수비력 보강으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며 “베테랑의 풍부한 경험이 코트 내에 안정감을 불어넣어 팀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곡고 창단 멤버인 한다혜는 2013-2014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3라운드 5순위로 GS칼텍스에 입단했다. 이후 11시즌 간 줄곧 GS칼텍스에서 뛰며 원클럽맨으로 자리매김했고, 2020-2021시즌 직후에는 첫 FA 자격을 얻어 연봉 1억2000만원에 계약한 바 있다.

한다혜는 프로 입성 후 꾸준한 실력 향상을 이루며 매 시즌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수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냈고 직전인 2023-2024시즌에는 디그와 리시브 등 수비 지표가 리그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FIVB(국제배구연맹) 여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와 2022년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는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으며 이번 이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한다혜는 구단을 통해 “프로 입단 후 첫 이적”이라며 “페퍼저축은행에서 제 가치를 인정해 좋은 제안을 줘 감사하다. 팀에 도움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배구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